Burleske for piano and orchestra

- □□

정보

Richard Strauss: Burleske for

Piano and Orchestra, TrV 145, AV 85

개요
곡명: Burleske for piano and orchestra, TrV 145, AV 85
작곡가: Richard Strauss (1864-1949)
작곡 시기: 1885-1886년. 1889년에 개정했다.
장르: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단악장 협주적 작품
헌정: Eugen d'Albert
초연: 1890년 6월 21일, 아이제나흐 Tonkünstlerfest, Eugen d'Albert 독주, Festival Orchestra 연주, Richard Strauss 지휘
초판: 1894년, Leipzig Steingräber. 총보와 파트보, 2대 피아노 편곡이 별도 출판되었다 .
구조: 하나의 큰 악장 안에서 팀파니 도입, 피아노와 관현악의 주제 대화, 서정적 중심부, 재현과 종결이 이어지는 대규모 소나타형 흐름
소요 시간: 약 19-21분
IMSLP: Burleske, TrV 145 (Strauss, Richard)

Wikipedia: Burleske

Richard Strauss의 Burleske는 피아노 독주와 관현악이 한 악장 안에서 익살과 긴장을 교대하는 협주적 작품이다. 네 대의 팀파니가 먼저 리듬을 던지고 피아노가 재치 있게 끼어들며, 빠른 기교와 노래하는 선율, 무거운 D단조 화음이 한 덩어리로 이어진다. 고전적인 다악장 협주곡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소나타형에
가까운 큰 흐름으로 전개되므로 , 피아노와 관현악의 대화가 곡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

작곡과 제목

Strauss는 1885-1886년, Meiningen에서 Hans von Bülow의 조수로 일하던 시기에 이 작품을 썼다. 초기 구상은 Scherzo in D minor 에 가까웠고, Bülow를 독주자와 헌정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기록이 있다. Kalmus

의 작품 안내에 따르면 Bülow는 곡이 복잡하고 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고, Strauss는 한동안 작품을 보류했다.

1889년 Eugen d'Albert가 악보를 살펴보고 피아노 파트의 변화와 삭제를 제안하면서 작품의 방향이
바뀌었다. Strauss는 개정본에 Burleske라는 제목을 붙이고 d'Albert에게 헌정했다. Burleske 는 희극적이고
과장된 몸짓을 암시하지만 , D단조의 무게와 진지한 서정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제목의 농담은 음악
전체를 가볍게 만드는 대신, 피아노와 관현악이 서로의 말투를 비틀어 되받는 방식을 가리킨다.

초연과 출판

1890년 6월 21일 아이제나흐 Tonkünstlerfest에서 d'Albert가 피아노를 맡고 Strauss가 지휘해 작품을 처음 연주했다. IMSLP와 Wiener Symphoniker의 공연 기록은 이 날짜와 연주자를 일치하게 제시한다. Hungarian National Philharmonic 페이지에 1892년 연주라는 표기가 있지만 다른 기관 기록과 충돌하므로 초연 연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Strauss는 초연 뒤에도 작품의 가치를 완전히 확신하지 못해 출판을 늦췄다는 설명이 있다. 1894년 Leipzig Steingräber가 총보와 파트보를 냈고, 2대 피아노 편곡도 같은 출판 계열에서 별도로 나왔다. Kalmus의 1950년대 재판과 후대 Eulenburg·Schott 연구용 총보는 이 초판 이후의 유통 단계다.

소요 시간

Wiener Symphoniker는 19분, IMSLP는 평균 20분으로 안내한다. 실제 녹음은 19분대에서 21분대까지 움직인다. 팀파니와 피아노가 주고받는 도입을 얼마나 넓게 잡는지, 중간의 긴 독주를 얼마나 유연하게 펼치는지, 종결부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따라 짧은 작품에서도 시간 차이가 생긴다.

편성

독주 피아노와 다음 관현악을 사용한다.

목관: 피콜로,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금관: 호른 4(두 대는 F, 두 대는 D), 트럼펫 2.
타악과 현악: 팀파니, 현악 5부.

English horn, 트롬본, 튜바, 하프는 원작 편성에 들어가지 않는다. 호른과 트럼펫의 조옮김 파트 표기는 1894 년 파트보와 현대 총보에서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음반이나 연주회가 사용한 판본을 함께 적으면 편성
비교가 쉬워진다.

팀파니가 먼저 여는 협주 관계

Linda Shamoon의 프로그램 노트는 네 대의 팀파니가 작품의 첫 주제를 제시하고 관현악이 응답한 뒤
피아노가 등장한다고 설명한다. 이 도입은 독주 피아노가 곧바로 주인공이 되는 전통적인 협주곡의 기대를
살짝 뒤집는다. 팀파니는 박자를 세는 반주 악기가 아니라, 피아노에게 먼저 말을 거는 상대처럼 들린다.

피아노는 그 신호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빠른 음형과 강한 악센트로 비틀어 되돌린다. 관현악도 독주를
두껍게 감싸기보다 짧은 동기를 받아서 다시 던진다. 그래서 익살은 단순한 빠른 음표에서 나오지 않는다. 누가
먼저 시작하고 누가 말을 끊는지가 매 순간 달라지는 타이밍에서 웃음의 감각이 생긴다.

단악장 형식의 흐름

도입과 주요 주제

초반에는 D단조의 무거운 화음과 팀파니의 불규칙한 신호가 맞물린다. 피아노는 높은 음역의 장식만 앞세우지
않고, 짧은 주제를 관현악 사이에 끼워 넣는다. Strauss가 Brahms의 음악을 가까이 접한 시기의 작품답게
주제와 화성에는 Brahms적인 결이 보이지만, 악센트를 과장하고 방향을 갑자기 꺾는 방식은 이미 Strauss
자신의 극장적 감각을 드러낸다.

소나타형으로 읽을 때 이 부분은 여러 주제가 나타나고 서로 충돌하는 제시부에 해당한다. Hungarian
National Philharmonic은 이 곡을 고전적 재현부 소나타형과 교향시적 선형 전개의 중간에 놓는다. 이 분류는
악보의 공식 악장명이 아니라, 단악장의 큰 흐름을 설명하는 분석적 도구다.

서정적 중심부

빠른 피아노 패시지가 잠시 가라앉으면 더 길게 노래하는 선율이 나타난다. 피아노가 혼자 감상적인 문장을
이어 가는 동안 목관과 현악이 부드럽게 응답하고, 곧 다시 팀파니와 금관의 무게가 돌아온다. 이 대목을 느린
악장으로 따로 세기보다, 익살스러운 외부 동작 속에 잠시 열린 내면으로 듣는 편이 곡의 단악장 성격에 맞다.

피아노는 이곳에서도 관현악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긴 독주가 끝나면 앞서 들은 리듬이 다른 음역과
악센트로 되살아나고 , 서정적인 선율은 빠른 주제의 재료로 바뀐다. 기교와 노래가 서로 다른 장면이 아니라
같은 주제를 바꾸어 말하는 두 방식이 된다.

재현과 종결

종결부는 거친 D단조 관현악 화음과 피아노의 이질적인 조성 감각을 맞부딪친다 . Shamoon은 이 구간에서
Wagner의 Tristan und Isolde 전주곡을 연상시키는 카덴차, 새 현악 주제, 피아노 주제의 재등장, 처음의
팀파니 리듬을 차례로 들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 연상은 직접 인용을 뜻하지 않으며, 반음계적 긴장과 종결
직전의 불안정한 음향을 설명하는 청취 단서다.

처음에 팀파니가 던졌던 리듬은 마지막에 다시 나타나며 곡을 원형으로 묶는다. 피아노와 관현악은 끝까지 서로의 문장을 받아치지만 , 마지막 화음은 농담의 가벼움보다 D단조의 무게를 남긴다. Burleske의 유머는 결말에서 사라지는 장식이 아니라, 진지한 종결을 조금 비스듬히 바라보게 하는 시선이다.

Brahms적 출발과 Strauss의 변형
Shamoon은 Strauss가 Meiningen에서 Bülow의 조수로 지내며 Brahms의 음악을 가까이 접한 뒤 이 작품을 썼다고 설명한다. 주제의 단단한 윤곽과 화성 진행은 Brahms의 영향을 떠올리게 하지만, 팀파니를 전면에 세우고 관현악의 응답을 익살스럽게 잘라 넣는 방식은 훗날의 Strauss를 예고한다. Brahms의 영향 은 작곡가가 직접 밝힌 단일한 원인이라기보다 , 당시의 음악적 환경과 악보에서 관찰되는 양식적 흔적을 가리킨다.

후대 작품과의 연결도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노트는 몇몇 주제의 윤곽에서 Till Eulenspiegels lustige Streiche나 Der Rosenkavalier를 예고하는 듯한 성격을 감지하지만 , 동일한 주제가 미리
인용되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이 곡은 젊은 Strauss가 Brahms적 기법, 리스트적인 단악장 전개, 자신의
극장적 유머를 한 실험 안에 겹쳐 놓은 사례로 들을 수 있다.

판본과 카탈로그 번호
Strauss는 이 작품에 공식 Opus 번호를 붙이지 않았다. TrV 145는 Franz Trenner 목록 번호, AV 85는 Erich Hermann Mueller von Asow 목록 번호이며, IRS 11은 IMSLP 내부 참조 번호다. 일부 음반과 문헌이 Op. 11 이라고 적지만, Op. 11은 Strauss의 제 1호른 협주곡에 배정된 번호이므로 Burleske와 혼동하지 않는다.

1886년의 Bülow 구상과 1889년 개정 뒤 d'Albert 헌정은 서로 다른 창작 단계다. 1894년 Steingräber 초판은 개정된 연주 텍스트이고 , 2대 피아노 편곡과 Kalmus 재판은 그 이후의 별도 매체다. 공연에서 어떤 총보와 파트보를 쓰는지에 따라 호른의 조옮김 표기와 세부 악센트가 달라질 수 있다.

연주와 듣기 안내
피아노 파트는 빠르고 어렵지만, 이 곡의 재치는 손가락 수보다 악센트와 타이밍에서 선명해진다 . 독주자가 모든 문장을 전면으로 밀어붙이면 팀파니와 목관의 말대꾸가 묻힌다. 반대로 관현악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서정적 중심부와 피아노의 가벼운 비틀기가 사라진다. 팀파니의 첫 신호, 피아노의 즉각적인 응답, 긴 선율이 다시 빠른 주제로 바뀌는 순간을 차례로 들으면 단악장 형식이 장면 전환처럼 느껴진다.

주요 자료

Library of Congress, Richard Strauss Burleske 권위 레코드

IMSLP, Burleske, TrV 145

Wiener Symphoniker, Burleske für Klavier und Orchester

- Alfred Music/Kalmus, *Burleske in D minor* □ □□
- Linda Shamoon, *Burleske for Piano and Orchestra* □□□□ □□ PDF
- Hungarian National Philharmonic, *Burleske in D minor* □□